

## 여성의 신체부위 및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비교

박정랑 · 박숙현<sup>†</sup>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A Comparison of the Preference by Gender on the Height of Males & Females and the Female Body

Jung-Rang Park · Sook-Hyun Park<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접수일(2009년 10월 26일), 수정일(2010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2010년 2월 18일)

####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by gender the preference about ideal female height and body par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203 males and 236 fema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Males and females prefer 161~165cm as the ideal female height and 176~180cm as the ideal male height. In regards to the ideal height difference between couples, both males and females prefer males to be taller, with the head of the female at the same height as the neck of the male. Males and females prefer the shorter height than the ideal height of a fashion model and Miss Korea who got the prize from the Korean beauty contest. In the case of Miss Korea, there has been a demand for tall women to participate in world beauty contests.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young people prefer a shorter height than the society expects. Males and females think the shoulder width is ideal when it is 2 times wider than the width of a face in regards to the preference of the ideal female body part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he ideal breast size. Males prefer C-cup size while females prefer B-cup size. The ideal size of waist preferred is between 60~65cm to both males and females. The ideal shape of legs preferred to both males and females is a slightly muscular shape.

**Key words:** Body part, Ideal body form, Body image, Height; 신체부위, 신체이상형, 신체이미지, 신장

## I. 서 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성의 내용을 토대로 표현된다.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외형적 미의 판단 기준은 당대 가치관에 의한 내면의 미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미의식은 자신이 처한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변

화되므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각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종족보존의 수단으로서 복종과 인내가 요구되던 과거의 이상적인 여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인체미는 사회적 요구에 필요한 신체적 부위를 강조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얼굴 생김새, 가슴이나 엉덩이 크기, 여성다운 아담한 신장 등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변화를 보여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면서 능력 있는 적극적인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hpark@ks.ac.kr

본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다. 이에 따라 이제는 얼굴 생김새나 신체의 부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창출하기에 적합한 마르고 신장이 큰 여성들이 선호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한국 젊은 세대들의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욕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신장이 크고 다리가 긴 서구적인 체형이 아름다운 신체로 선호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과 왜소한 몸을 가진 한국의 젊은이들은 피트니스나 성형수술, 다이어트 등을 하며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신장과 배우자의 신장, 모델이나 미스코리아 등 외모만으로 평가받는 집단의 신장,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이러한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되어진 선행논문은 다음과 같다. 임경복(1997), 송경자(1999), 권기영(2000), 이경림(2004)은 신체이미지의 상징성이나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연구하였고, 송정아(2000), 김정원, 신상원(2001), 남궁윤선, 한자영(2005)은 모델이나 미스코리아 신체에 대한 연구로 현재 우리사회 미인의 인체비율을 설명하였다. 류기주(1994), 이옥희(2001), 김은희(2001)는 이상적인 신체미와 복식형태를 연구하였고, 이정민(2005)은 색시한 신체부위와 색시디자인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신체이미지의 상징성과 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분석하거나 신체이미지에 따른 패션인지를 다루고 있을 뿐 여성의 신체부위 및 신장에 관한 이상적인 것과 선호하는 것의 차이나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남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배우자의 신장에 대한 성별 선호도를 비교·분석하고, 둘째, 남여 모델과 미스코리아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셋째, 여성의 신체부위에 따른 성별 선호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현대의 한국 젊은이들이 중시하는 신장이나 신체부위에 대한 남여 인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이미지

신체는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도구로서 전체적인 통일체이며, 인지적 구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신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하며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일차적인 산물이 된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외모는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정신적 표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의 총체를 나타내는 집합개념이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기 신체에 대해 가지는 느낌과 태도(Stuart, 1983)라 하였으며, 신체의 정신적 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자아 개념의 한 요소이고 출발이며 기초라고 정의하였다. Wassner(1982)는 신체이미지란 전체적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서 주체성, 자존심, 자기 가치의 근본이 되며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Thompson(1990)은 신체이미지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각적인(perceptual) 부분과 전체 외모에 대한 평가나 관심, 열망 등의 태도적 측면을 포함하는 주관적인(subjective) 측면, 의복이나 화장, 성형수술과 같은 행동적인(behavioral)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상으로 볼 때 신체이미지란 자기 신체에 대한 느낌과 태도로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이미지의 형성요소로는 개인의 성격, 태도, 가치관, 목표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형성된 신체이미지는 성장과정이나 사회문화적 영향, 질병이나 상해, 인위적인 수술 등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아정체성이나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한다. 즉, 신체이미지는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와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과 인간이 이루고 있는 집합체인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수 불

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유경, 2005).

## 2. 한국여성의 이상적 신체조건

과거 한국의 여성은 신체의 노출을 꺼렸으며 복식의 형태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감싸는 미를 추구하는 관의형의 의복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풍속화 중 미인도를 통해 한국여성의 신체조건을 살펴보면 목이 길고 어깨가 좁으며 ‘섬섬옥수’란 말이 있듯이 손이 아름다운 여성을 미인으로 선호하였다. 가슴이나 허리, 엉덩이 등의 노출을 천하게 여겼으므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미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조선시대말, 외래의 문화가 유입되고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여성의 미는 변화하였다. 전쟁 후 보릿고개가 만연했던 1960년대까지는 ‘아랫배 천석’이라 하여 풍만한 복부를 가진 여성을 미인으로 여겼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얼굴로 판단되었다. 1980년에 접어들어 자본주의와 사회문화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성의 외모 역시 서구적 미인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80년대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대중매체와 이미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여성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평가의 범위가 얼굴에서 몸 전체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고, 현재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예쁘더라도 ‘날씬하고 잘 빠진’ 몸매를 갖지 못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미인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한서설아, 2000).

2000년 이미지 산업 시대의 도래는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기준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대중에게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이상적 외모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로써 한국여성들에게 몸매관리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김유경, 2005).

### 1) 패션모델의 신체조건

패션모델은 신체적 조건을 중요시 하며 의복 착용시 보다 나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업이다. 패션모델의 이상적인 신체 기준은 유행복식의 변화양상에 따라 신장과 체중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 패션쇼가 개최되

었으며 당시의 모델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강귀희, 영화배우 최은희(163cm) 등이 패션모델의 역할로 옷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당시 최고 미녀들로 165cm 이하의 아담한 신장에 마르지도 통통하지도 않은 건강한 체형으로 옷을 입었을 때 등이 반듯하고 다리가 휘지 않은 체형을 선호하였다(“초대, 미스코리아 강귀희”, 2009).

1960년대 들어 전문패션모델 양성기관이 생성되었고 변자영, 신성아 등의 모델이 배출되었다. 또한 조혜란은 166.5cm의 큰 신장에 49kg의 비쩍 마른 몸매로 어느 여배우보다 효과 있게 옷을 입어냄으로써 직업모델로서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박지연, 2007).

1970년대는 기성복 산업의 발전으로 패션모델의 수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루비나, 이희재, 신성아, 전원기(167cm/48kg)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1950~1960년대 등글고 품위 있는 이미지보다는 깡마른 체형과 작은 얼굴, 긴 목선, 찢어진 눈에 등 동양적이면서 독특한 이미지로 새로운 모델형을 선도하였다.

1980년대 패션산업의 팽창으로 모델산업이 대형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김동수(175cm), 박영선(175cm), 이종희(178cm) 등이 활동하였다. 이들은 모두 175cm 이상의 장신들로 서구적 체형과 지적인 이미지로 패션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였다.

1992년 시작된 슈퍼 엘리트 모델 대회로 한국 패션 모델은 스타를 뛰어넘는 대중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제1회 슈퍼모델이었던 이소라는 178cm 신장에 윤곽이 뚜렷한 얼굴, 서구적이며 건강한 이미지로 상업적이면서 대중적인 패션모델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박지연, 2007). 또한 주정은(177cm), 박둘선(178cm), 이기용(180cm) 등 장신의 9등신 체형인 서구형 패션모델들이 이 대회에 입상하여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1970년 이전까지 패션 모델의 신장은 165cm 정도였으나, 슈퍼 엘리트 모델 대회 이후로 국내 모델의 신장은 177cm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

2000년대 매체의 발달은 모델의 직업군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으며 런웨이(runway) 모델, 에디토리얼(editorial) 모델, 피팅(fitting) 모델, 홈쇼핑 모델 등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4~5년 전부터 장운주(173cm), 김다울(176cm), 한혜진(178cm) 등 외국의 모델보다 신장은 작지만 동양적인 매력을 가진 모델들이 파리와 뉴욕의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 진출하고 있고, 2008년 세계 최대의 모델 에이전시인 포드

모델사(Ford Model, Inc)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한국대표 강승현(178cm)이 1위를 하면서 한국 패션모델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즉, 한국적 이미지나 동양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아지면서 동양적인 마스크에 서구적인 신체비율을 가진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2) 미스코리아의 신체조건

미스코리아는 지, 덕, 체의 조화가 뛰어나고 진심을 겸비한 한국적 미인을 뜻한다. 한국에서 실시된 최초의 대회는 1957년에 개최되었으며, 최초로 여성의 체형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미인대회이다.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신체 치수에 도달해야만 했고, 그러한 신체치수를 지닌 순위에 든 입상자들의 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체조건 이상(理想)이었다(남궁윤선, 한자영, 2005).

미스코리아의 체형은 조건으로 판단하는 패션모델대회와 달리 인성 쪽에 비중을 두으로써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의 조화를 강조한다. 슈퍼모델 대회 이전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는 내적인 미가 나타나는 신체조건이 중요하였고, 특히 얼굴로 우승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높았다. 이 시기에는 얼굴에 수반되는 성형이 성행하였고 예쁜 얼굴은 고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 체형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고 체형 자체가 갖는 특권적 위치가 얼굴에 비해 점차 확고해져 갔다. 예쁜 얼굴과 함께 날씬함과 균형 있는 체형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경향으로 피트니스나 신체성형이 늘어났다. 특히 1992년 슈퍼모델 대회가 생겨나 체형, 특히 큰 신장에 대한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미스코리아의 신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각종 미인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한 한 성형의과 전문의는 “미스코리아는 신장이 175cm, 슈퍼모델은 180cm 이상은 돼야 명함을 내민다.”(“미스코리아 신장 논란”, 2008)고 하여 큰 신장의 신체가 미인 대회에서 필수적이지 배타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2000년 중반 이후 이하늬(174cm, 2007 미스유니버스 4위), 유한나(178cm, 2007 미스인터콘티넨탈 2위), 장윤서(176cm, 2006 미스인터내셔널 3위) 등이 장신의 신장과 균형 있는 체형, 동양적인 이미지로 국제 미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내외 미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장신의 신장이 조건이 되고 있으며 균형 있

는 서구적 신체가 선호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남여의 신장과 여성의 신체부위별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설문문항은 남궁윤선, 한자영(2005), 양의식(2004) 등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신체 부위별 항목에 대한 평가도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에서 제시된 2005년도 20~30대 남여의 한국인 표준체형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신체부위는 어깨너비, 가슴크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리형태의 다섯 항목을 선정하였다.

1) 어깨너비는 양쪽 귀의 얼굴 폭을 중심으로 하는 얼굴너비를 기준으로 목옆점에서 어깨 끝점까지의 길이를 2배 이하, 2배, 2.5배, 3배의 비율로 나누었다.

2) 가슴크기는 한국인 표준체형의 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 차이를 사용한 여성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기준으로 A컵, B컵, C컵, D컵으로 분류하였다.

3) 허리둘레는 20~30대 한국여성 표준체형의 허리둘레인 26inch(68.5cm)를 기준으로  $\pm 2$ inch의 편차를 두었으며, 24inch(60.9cm) 미만, 24inch 이상~26inch 미만(60.9cm 이상~68.5cm 미만), 26inch 이상~28inch 미만(68.5cm 이상~71cm 미만), 28inch 이상(71cm 이상)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4) 엉덩이둘레는 20~30대 한국여성 표준체형의 엉덩이둘레인 36inch(91.5cm)를 기준으로  $\pm 1$ inch의 편차를 두어 34inch 미만(86.3cm 미만), 34inch 이상~35inch 미만(86.3cm 이상~88.9cm 미만), 35inch 이상~36inch 미만(88.9cm 이상~91.4cm 미만), 36inch 이상(91.4cm 이상)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5) 다리형태는 발목둘레에 대한 종아리둘레의 수치를 기준으로 1:1.2(가늘고 종아리 굴곡이 없는 다리), 1:1.5(가늘고 종아리 굴곡이 있는 다리), 1:2(약간 굵고 종아리 굴곡이 있는 다리), 1:2.5(굵은 다리)의 4가지 비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6월 16일에서 8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는 남성 230부, 여성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불완전한 자료와 비 수거 자료를 제외한 남성 203부, 여성 236부의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남녀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 1) 조사대상자의 신장 분포

남녀 조사대상자의 신장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성의 신장 분포는 176~180cm가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71~175cm이 27.1%로 조사대상자의 68% 이상이 171~180cm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장 분포는 160cm 이하가 41.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161~165cm가 36%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77% 이상이 165c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배우자의 이상적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남녀 이상적인 배우자의 신장에 대한 분포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배우자인 여성의 신장 분포는 161~165cm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160cm 이하가 24.5%로 나타나 78%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의 신장으로 165cm 미만의 여성을 선호하였다.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배우자인 남성의 신장 분포를 살펴보면 176~180cm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71~175cm가 25%로 나타나 80% 이상의 여성들이 배우자의 신장으로 171~180cm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이 발표한 2005년도 한국표준체형의 신장수치인 남자 173.2cm, 여자 160cm와 비교해 보면 표준체형 보다 신장이 큰 배우자를 이상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 3) 여성의 이상적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여성의 이상적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성의 61.6%, 여성의 63.6%가 161~165cm의 여성을 가장 이상적인 신장으로 선호하였다. 남녀 모두 두 번째로 선호하는 신장으로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신장 분포

(단위: n(%), cm)

성 별	신 장							Total
	160 이하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남	1( 1.5)	7( 3.4)	27(13.3)	55(27.1)	85(41.9)	24(11.8)	4( 2.0)	203(100.0)
여	97(41.1)	85(36.0)	43(18.2)	9( 3.8)	0( .0)	2( .8)	0( .0)	236(100.0)

<표 2> 배우자의 이상적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cm)

성 별	신 장							Total
	160 이하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남	50(24.5)	110(54.2)	38(18.7)	2( 1.0)	3( 1.5)	0( .0)	0( .0)	203(100.0)
여	1( .4)	4( 1.7)	4( 1.7)	59(25.0)	131(55.5)	36(15.3)	1( .4)	236(100.0)
Total	51(11.6)	114(26.0)	42( 9.6)	61(13.9)	134(30.5)	36( 8.2)	1( .2)	439(100.0)

<표 3> 여성의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cm)

성 별	신 장							Total
	160 이하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남	31(15.3)	125(61.6)	39(19.2)	2( 1.0)	4( 2.0)	1( .5)	1( .5)	203(100.0)
여	12( 5.1)	150(63.6)	74(34.4)	0( .0)	0( .0)	0( .0)	0( .0)	236(100.0)
Total	43( 9.8)	275(62.6)	113(25.7)	2( .5)	4( .9)	1( .2)	1( .2)	439(100.0)

$$\chi^2=27.18***$$

\*\*\*p<.001

166~170cm로 조사되었으나 남여의 수치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19.2%, 여성은 34.4%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장이 큰 여성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고, 여성조사자의 41.1%가 자신의 신장이 160cm 미만임을 볼 때 여성은 자신의 신장보다 큰 신장을 이상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에 대한 지각조사인 Jacobi and Cash(1994)의 '여자들이 자신의 지각된 사이즈보다 더 큰 신장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4) 남성의 이상적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남성의 이상적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성의 62.1%와 여성의 65.3%가 176~180cm의 신장을 가장 선호하였고, 남성의 20.2%와 여성의 22.5%가 181~185cm의 신장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특히 <표 2>와 <표 4>를 살펴보면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신장은 이상적 배우자의 신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30대 한국여성은 이상적인 남성의 신장과 이상적 배우자의 신장 모두 176~180cm를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 5) 이상적인 남녀 간의 신장 차이에 관한 성별 선호도

이상적인 남녀 간의 신장차이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성의 50.7%와 여

성의 68.6%가 여성의 신장이 남성의 목부분까지 오는 경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여 모두 96% 이상이 여성보다 남성의 신장이 커야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표 4>를 통해서도 여자의 이상적인 신장(161~165cm)과 남성의 이상적인 신장(176~180cm)의 차이가 10cm 이상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장이 큰 여성보다는 신장이 큰 남성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여의 신장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모델과 미스코리아의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 1) 남자모델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

남자모델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를 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남자모델의 이상적인 신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의 56.7%와 여성의 53.0%가 181~185cm를 가장 선호하였고, 두 번째로 남성의 30.5%와 여성의 39.8%가 186cm 이상의 신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여 85% 이상이 남자모델의 이상적 신장으로 180cm 이상의 신장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남자모델의 선호 신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의 54.7%와 여성의 61.0%가 176~180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남성의

<표 4> 남성의 이상적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cm)

성 별	신 장							Total
	160 이하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남	0(.0)	1(.5)	5(2.5)	28(13.8)	126(62.1)	41(20.2)	2(1.0)	203(100.0)
여	0(.0)	1(.4)	1(.4)	27(11.4)	154(65.3)	53(22.5)	0(.0)	236(100.0)
Total	0(.0)	2(.5)	6(1.4)	55(12.5)	280(63.8)	94(21.4)	2(.5)	439(100.0)

$$\chi^2=6.75$$

<표 5> 이상적인 남녀 간의 신장차이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성 별	이상적인 남녀간의 신장 차이				Total
	여성이 남성의 목부분까지 오는 경우	여성이 남성의 귀부분까지 오는 경우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경우	
남	103(50.7)	94(46.3)	6(3.0)	0(.0)	203(100.0)
여	162(68.6)	72(30.5)	1(.4)	1(.4)	236(100.0)
Total	265(60.4)	166(37.8)	7(1.6)	1(.2)	439(100.0)

$$\chi^2=18.25***$$

\*\*\*p<.001

<표 6> 남자모델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

(단위: n(%), cm)

구 분	성 별	신 장						Total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이상적 신장	남	0( .0)	1( .5)	1( .5)	24(11.8)	115(56.7)	62(30.5)	203(100.0)
	여	1( .4)	0( .0)	0( .0)	16( 6.8)	125(53.0)	94(39.8)	236(100.0)
Total		1( .2)	1( .2)	1( .2)	40( 9.1)	240(54.7)	156(35.5)	439(100.0)
$\chi^2=9.15$								
선호 신장	남	0( .0)	3( 1.5)	12( 5.9)	111(54.7)	73(36.0)	4( 2.0)	203(100.0)
	여	1( .4)	3( 1.3)	10( 4.2)	144(61.0)	75(31.8)	3( 2.0)	236(100.0)
Total		1( .2)	6( 1.4)	22( 5.0)	255(58.1)	148(33.7)	7( 1.6)	439(100.0)
$\chi^2=3.16$								

36.0%와 여성의 31.8%가 181~185cm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여가 생각하는 남자모델의 이상적인 신장보다는 실제 선호하는 신장이 다소 작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국내 패션모델의 신장에 대한 연구(김정원, 신상원, 2001)를 살펴보면 남자모델의 70%가 185cm 이상이고 이상적으로 인지하는 신장이 181~185cm로 실제 모델의 신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모델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신장이 제시되고 있고 남성모델의 경쟁력으로 큰 신장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여자모델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

여자모델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자모델의 이상적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41.4%와 여성의 58.5%가 171~175cm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166~170cm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모델의 선호 신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의 59.6%와 여성의 68.2%가 166~170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29.6%와 여성의 23.3%가 171~175cm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신장보다 선호하는 신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패션모델의 신장에 대한 연구와 여자 패션모델의 신장에 대한 연구(송정아, 2000)에서는 여자모델의 43.4%가 175~179cm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자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신장인 171~175cm 보다도 크며, 17.7%가 180cm 이상의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표 7>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패션모델의 신장보다도 실제 패션모델은 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패션모델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직업군이 확대됨에 따라 모델 간의 경쟁력이 높아져, 신장이 큰 서구적인 신체조건을 가진 모델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여자모델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

(단위: n(%), cm)

구 분	성 별	신 장						Total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이상적 신장	남	2( 1.0)	74(36.5)	84(41.4)	41(20.2)	1( .5)	1( .5)	203(100.0)
	여	3( 1.3)	50(21.2)	138(58.5)	44(18.6)	0( .0)	1( .4)	236(100.0)
Total		5( 1.1)	124(28.2)	222(50.6)	85(19.4)	1( .2)	2( .5)	439(100.0)
$\chi^2=16.70^{**}$								
선호 신장	남	16( 7.9)	121(59.6)	60(29.6)	6( 3.0)	0( .0)	0( .0)	203(100.0)
	여	12( 5.1)	161(68.2)	55(23.3)	7( 3.0)	1( .4)	0( .0)	236(100.0)
Total		28( 6.4)	282(64.2)	115(26.2)	13( 3.0)	1( .2)	0( .0)	439(100.0)
$\chi^2=5.09$								

\*\*p<.01

### 3) 미스코리아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

미스코리아의 이상적인 신장과 선호하는 신장에 관해 성별 비교를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미스코리아의 이상적인 신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의 45.8%와 여성의 51.3%가 171~175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43.3%와 여성의 41.9%가 166~170cm를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코리아의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69.5%와 여성의 74.6%가 166~170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모두 171~175cm를 이상적 신장으로 선호하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의 미스코리아 신장과 <표 7>의 모델 신장을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미스코리아와 모델의 이상적 신장이 선호 신장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미인 대회의 경쟁력이 얼굴보다 장신의 신장과 서구적인 신체비율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세계적인 미인 대회와 비교해 볼 때, 국제 미인 대회 입상자들이 장신의 미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인 역시 신장이 크고 신체비율이 좋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는 173cm의 신장으로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4위로 입상하였으나, 기대를 모았던 2007년 미스코리아 진 이지선(169cm)이 본선진출에 실패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스코리아들의 '신장'이 논쟁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더구나 170cm가 안 되는 이지선의 신장이 다른 나라의 장신 미인들과 비교대상이 되면서 장신의 신장은 국제적 미인 대회 입상을 위한 조건으로 더욱 이슈화 되었다.

이렇게 미스코리아의 신장이 국제 대회 수상을 위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8년 미스코리아 진(나리: 168cm), 선(최보인: 169cm), 미(장윤희: 167cm)들의 작은 신장이 네티즌들의 비판적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선호 신장보다 이상적 신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 3. 여성의 신체부위에 따른 성별 선호도

여성의 이상적 체형 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여성의 체형을 어깨너비, 가슴크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리형태 등의 부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각 신체부위의 구분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시된 2005년도 20~30대 여성 표준체형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각 항목의 이상적 선호도를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여성의 이상적인 어깨너비에 관한 성별 선호도

여성의 이상적인 어깨너비에 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를 살펴보면 남성의 83.3%와 여성의 85.2%가 얼굴너비에 대한 2배 정도의 어깨너비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고, 남성의 13.3%와 여성의 14.4%가 2.5배의 어깨너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 2) 여성의 이상적인 가슴크기에 관한 성별 선호도

<표 10>을 살펴보면 남성의 51.7%가 C컵을 가장 이상적인 가슴으로 선호하였고, 39.9%가 B컵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72.5%가 B컵을 선호하였고, 25.4%가 C컵을 선호하였다. 현대 사회의 성형발달과 마른몸매에서도 풍만하게 모아진 가슴을

<표 8> 미스코리아의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에 관한 성별 비교

(단위: n(%), cm)

구분	성별	신장						Total
		161~165	166~170	171~175	176~180	181~185	186 이상	
이상적 신장	남	10(4.9)	88(43.3)	93(45.8)	12(5.9)	0(.0)	0(.0)	203(100.0)
	여	11(4.7)	99(41.9)	121(51.3)	5(2.1)	0(.0)	0(.0)	236(100.0)
Total		21(4.8)	187(42.6)	214(48.7)	17(3.9)	0(.0)	0(.0)	439(100.0)
$\chi^2=4.79$								
선호 신장	남	38(18.7)	141(69.5)	22(10.8)	1(.5)	1(.5)	0(.0)	203(100.0)
	여	41(17.4)	176(74.6)	18(7.6)	1(.4)	0(.0)	0(.0)	236(100.0)
Total		79(18.0)	317(72.2)	40(9.1)	2(.5)	1(.2)	0(.0)	439(100.0)
$\chi^2=6.55$								



<표 9> 여성의 이상적인 어깨너비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배수)

성 별	이상적 어깨너비				Total
	2배 이하	2배	2.5배	3배 이상	
남	6( 3.0)	169(83.3)	27(13.3)	1( .5)	203(100.0)
여	1( .4)	201(85.2)	34(14.4)	0( .0)	236(100.0)
Total	7( 1.6)	370(84.3)	61(13.9)	1( .2)	439(100.0)

$$\chi^2=5.69$$

<표 10> 여성의 이상적인 가슴크기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컵)

성 별	이상적 가슴크기				Total
	A컵 이하	B컵	C컵	D컵	
남	2( 1.0)	81(39.9)	105(51.7)	15( 7.4)	203(100.0)
여	5( 2.1)	171(72.5)	60(25.4)	0( .0)	236(100.0)
Total	7( 1.6)	252(57.4)	165(37.6)	15( 3.4)	439(100.0)

$$\chi^2=58.55^{**}$$

\*\*p<.01

W라인, Y라인이라 일컫는 트렌드를 지향하는 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남녀의 대부분이 B, C컵의 큰 가슴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여성의 선호도가 없는 D컵 가슴을 남성의 7.4%가 선호하고 있어 남성의 59% 이상이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슴인 B컵보다 큰 가슴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왜 큰 가슴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성적 학설을 살펴보면 유아기 때 엄마 품에서 젖을 빨며 느꼈던 안락감과 포만감, 애정에 대한 모성애적 추구가 가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있다. 이러한 성적 성향과 큰 가슴을 선호하는 사회적 성향의 복합적 요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큰 가슴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여성의 이상적인 허리둘레에 관한 성별 선호도

<표 11>을 살펴보면 남성의 69.0%와 여성의 68.6%가 60.9~68.5cm(24~26inch)의 구간을 가장 이상적인 허리로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성의 24.6%와 여성의 29.2%가 60.9cm(24inch) 이하의 가는 허리를

이상형으로 선택하였다. 남녀 90% 이상이 20대 한국 표준체형의 허리둘레인 68.7cm(27inch)보다 가는 허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은 마른모델들의 건강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디자이너들이 175cm에 63.5cm(25inch) 허리를 가진 패션모델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미의 트렌드인 S라인이 대두되면서 가슴과 엉덩이는 크고 허리는 작은 사이즈가 여성의 로망이 되고 남성이 지향하는 이상적 신체의 형태로 인식되면서 가는 허리를 선호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4) 여성의 이상적인 엉덩이둘레에 관한 성별 선호도

<표 12>를 살펴보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엉덩이의 둘레는 남성의 72.4%와 여성의 78.4%가 86.3~88.9cm 구간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남성의 24.6%와 여성의 18.2%가 88.9~91.4cm 구간을 선호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전 멋진 S라인을 위하여 섹시하고 굴곡 있는 엉덩이를 선호할 것이라 추측하였으나, 실

<표 11> 여성의 이상적인 허리둘레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cm)

성 별	이상적 허리둘레				Total
	60.9cm (24inch) 이하	60.9~68.5cm (24~26inch)	68.5~71cm (26~28inch)	71cm (28inch) 이상	
남	50(24.6)	140(69.0)	12( 5.9)	1( .5)	203(100.0)
여	69(29.2)	162(68.6)	5( 2.1)	0( .0)	236(100.0)
Total	119(27.1)	302(68.8)	17( 3.9)	1( .2)	439(100.0)

$$\chi^2=6.07$$

&lt;표 12&gt; 여성의 이상적인 엉덩이둘레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cm)

성 별	이상적 엉덩이둘레				Total
	86.3cm 이하 (34inch)	86.3~88.9cm (34~35inch)	88.9~91.4cm (35~36inch)	91.4cm 이상 (36inch)	
남	4( 2.0)	147(72.4)	50(24.6)	2( 1.0)	203(100.0)
여	6( 2.5)	185(78.4)	43(18.2)	2( .8)	236(100.0)
Total	10( 2.3)	332(75.6)	93(21.2)	4( .9)	439(100.0)

$$\chi^2=2.81$$

&lt;표 13&gt; 여성의 이상적인 다리형태에 관한 성별 선호도

(단위: n(%), 비율)

성 별	이상적 다리형태				Total
	1:1.2 (가늘고 종아리 굴곡이 없는 다리)	1:1.5 (가늘고 종아리 굴곡이 있는 다리)	1:2 (약간 굵고 종아리 굴곡이 있는 다리)	1:2.5 (굵은 다리)	
남	19( 9.4)	145(71.4)	39(19.2)	0( .0)	203(100.0)
여	46(19.5)	185(78.4)	5( 2.1)	0( .0)	236(100.0)
Total	65(14.8)	330(75.2)	44(10.0)	0( .0)	439(100.0)

$$\chi^2=40.08***$$

\*\*\*p&lt;.001

제 선호 형태는 크지 않은 엉덩이를 선호하였다. 또한 이상적 체형이라 할 수 있는 패션모델이나 미스코리아의 평균 엉덩이둘레인 88.9cm(35inch)(남궁윤선, 한자영, 2005)보다도 작은 엉덩이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 5) 여성의 이상적인 다리형태에 관한 성별 선호도

<표 13>을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인 다리형태로는 남성의 71.4%와 여성의 78.4%가 1:1.5(가늘고 종아리 굴곡이 있는 다리) 비율의 다리형태를 선호하였다. 두 번째로는 남성의 19.2%가 1:2(약간 굵고 종아리 굴곡이 있는 다리) 비율을 선호하였고, 여성의 19.5%가 1:1.2(가늘고 종아리 굴곡이 없는 다리) 비율의 다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날씬한 다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이 자신의 지각된 사이즈보다 더 마르고 가볍고 큰 신장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Jacobi and Cash(1994)의 연구와 상통한다.

<표 13>의 결과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건강한 느낌을 주는 형태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 가슴, 허리, 엉덩이의 치수 등이 여성의 몸매를 판단하는 수치로 여겨왔지만 최근 넓적다리둘레와 종아리둘레가 여성의 몸매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수치(“이상적인 신체”, 2008)로 나타나 여성의 다리형태는 인체의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위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요즘 하체유펙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키니진과 타이즈가 유행하면서 예쁜 각선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늘고 굴곡이 없는 종아리의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의외로 굴곡이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이상적인 체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현상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의 신장이나 여성의 신체 부위별 선호도를 살펴봄으로써 외모지상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남녀의 신장과 여성의 신체부위에 따른 남녀 인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신장에 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161~165cm, 남성은 176~180cm로 이상적인 신장과 선호하는 신장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여성은 신장이 큰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전히 신장이 너무 큰 여성보다는 한국여성의 평균 신장보다는 조금 더 큰 신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커플의 이상적인 신장의 차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의 목부위까지 오는 경우를 가장 선호하였다.

2. 체형을 중시하는 신분의 패션모델과 미스코리아에 관한 이상적 신장과 선호 신장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남녀 모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보다는 좀 더 작은 신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신장 선호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모델들의 평균 신장보다는 많이 작은 신장의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코리아의 경우 외국의 미녀들과 겨루어야 하는 세계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큰 신장의 당선자를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신장이 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신장은 의외로 예상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3. 여성의 신체부위별 이상적인 사이즈를 살펴본 결과, 어깨너비는 남녀 모두 얼굴너비와 양쪽어깨 끝점의 비율이 2배가 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인식하였다. 가슴크기는 남성은 C컵을, 여성은 B컵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허리둘레는 남녀 모두 24~26inch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다리형태는 남녀 모두 약간의 종아리 라인이 나타나는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최근 하체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키니진과 타이즈가 유행하면서 굴곡 없는 매끈한 다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종아리 근육이 좀 나타나는 다리를 이상적으로 생각 하였다.

이상의 결과, 무조건 큰 신장이 이상적이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다르게 여성의 신장은 예상만큼 큰 신장이 선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녀 신장과 여성의 신체부위에 관한 선호도에서 가슴크기를 제외 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남녀 모두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30대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과 지역을 다양화하여 한국사람들의 키와 신체에 관한 선호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권기영.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경. (2005). *여성의 바디이미지와 신체훈련 참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2001).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조건과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494-504.
- 김정원, 신상원. (2001). 국내 패션모델 실태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4), 313-322.
- 남궁윤선, 한자영. (2005). 우리나라 미인 대회를 통해 본 이상적 몸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대회를 중심으로. *복식*, 55(6), 15-23.
- 류기주. (1994).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스코리아 신장 논란. (2008, 8. 10).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자료검색일 2008, 8. 12, 자료출처 <http://star.mt.co.kr>
- 박지연. (2007). *한국 패션모델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 보고서(2차년도 최종보고서)*. 과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송경자. (1999). 신체이미지, 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7(1), 740-751.
- 송정아. (2000). 패션모델과 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 325-330.
- 양의식. (2004). *패션의 변천사에 따른 패션모델의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림. (2004). *신체인지도 및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 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비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적인 신체. (2008, 8. 12). *영국일간 인디펜던트*. 자료검색일 2008, 8. 12, 자료출처 <http://www.independent.co.uk>
- 이유희. (2001). *이상적인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민. (2005). *섹시한 신체부위와 섹시디자인의 인지도에 관한 성별 연령별 비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경복. (1997).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2), 34-45.
- 초대, 미스코리아 강귀희 여사를 만나고. (2009, 2. 22). *세상을 바꾸는 힘, 아름다운 세상: 문화탐방*. 자료검색일 2009, 2. 25,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horengin>
- 한서설아. (2000). *다이어트의 성경치*. 서울: 책세상.
- Jacobi, L., & Cash, T. F. (1994). In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physioloyg*, 24(5), 379-396.
- Stuart, G. W. (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nc ursoring*. St. Louis: Mosby.
- Thompson, J. 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Pergamon Press.
- Wassner, A. (1982).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childhood-onset versus adulthood-onset obese woman. *Women & Therapy*, 12(2), 67-73.